



MONTHLY KOFA

코파의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코파의

Vol. 62
2019/11



조코위 대통령, 새 내각에 '규제 간소화·일자리 창출' 지시

대선 '라이벌' 국방부 장관 임명 이유 … "훌륭한 경험 가져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새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규제 간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시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취임식 연설을 시작으로 '조코위 집권 2기'가 본격적인 닷을 올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204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 7조 달러(한화 약

8,232조원), 1인당 GDP는 3 억 2,000만 루피아(약 2,668 만원)를 달성해 중진국의 합정에서 벗어나겠다"며 "빈

곤을 0%에 근접한 세계 5위 경제국 대열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규제 간소화, 관료주의 철폐, 경제구조 전환 등 5개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취임 한 달 안에 규제의 틀을 간

소화하라"며 "지나치게 복잡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를 손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국민 서비스와 재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달 안에 가려내야 한다"며 "그런 규제는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국민에게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장관들이 회의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만, 외부에는 의견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CNN 인도네시아 등이 25일 보도했다.

그동안 조코위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투자유치' 라며 지난 내각에도 규제개혁을 수차례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미·중 무역

분쟁으로 최근 중국에서 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여기는 하나도 안 왔다"며 "인하가에 우리는 몇 년이 걸리는데, 베트남은 두 달이면 해결되니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질책한 바 있다. 기업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에서 맞붙은 뽐라보워 수비안도 야당 총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힌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상호 협력을 추구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성으로서) 뽐라보워는 정말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두고 '위험한 도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뽐라보워가 2024년 대선을 노리고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인권단체들은 뽐라보워가 민주화 운동가들의 납치·실종에 연루됐던 인물이라며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내년 자카르타 주최저임금, 노조는 460만 루피아 이상 요구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 주 노조가 내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을 월 460만 루피아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자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인 394만 973루피아를 기준으로 약 17%의 상승률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차관은 파우파주 출신으로, 투쟁 민주당(PDIP)의 존 웨빠 웨피 뽐씨가 취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취임 전 파푸아주 출신을 각료에 등용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이를 차관직으로 실현시킨 형태가 되었다.

가 적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적정생활수준(KHL)은 396만 5,221 루피아였다.

노동부는 앞서 최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경제 성장률을 더한 수치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에는 8.51%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기업 측이 요구하는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인도네시아 차관 12명 취임…최연소는 32세 여성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11개 주 출신 차관 12명을 발표했다.

12명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의 민트데카 대통령 궁에서 취임식에 참석한 후 당일 취임했다.

재무부 차관은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수아하실나자리를, 국영기업부 차관에는 국영 만디리 은행의 행장 경험을 가진 부디 구나디 사

디킨과 까르띠꼬 위르조암모조 두 명을 등용했다.

관광·창조경제부 차관에 오른 안젤라 따누스디보는 32

세로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이다. 안젤라씨는 복합 기업

MNC 그룹 산하의 미디어 기업인 미디어 누산파라 찌뜨라(MNC) 하리 따누수디보(일명 따누) 회장의 장녀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차관은 파우파주 출신으로, 투쟁 민주당(PDIP)의 존 웨빠 웨피 뽐씨가 취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취임 전 파푸아주 출신을 각료에 등용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이를 차관직으로 실현시킨 형태가 되었다.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부산 신발 · 섬유 · 패션 산업의 모든 것 한자리에



▲ 국내 유일의 신발, 섬유, 패션 분야 복합전시회인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벡스코에서 펼쳐진다.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장 모습.

스마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 중인 부산 신발 · 섬유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차별화한 전시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27회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 '패션(Passion&Fashion)부산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총괄 주관하고 한국산업용섬유협회,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산업협동조합,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공

동으로 참여한다.

올해 전시회는 부산 신발 · 섬유 산업이 태동한 지 10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선언하는 자리이자 신발 · 섬유 종사자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가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패션부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었다.

3일간 국내외 300여개 참가업체가 700여개 부스를 통해 지역 전통산업인 신발 · 섬유 · 패션의 새로운 기술과 우수 제품을 알린다.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최해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 판로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행사와 비즈니스 상담회 외에도 △지역대학연합페션쇼(개막행사) △브랜드 패션쇼 △한국섬유공학회 세미나 △한국신발생체역학 심포지엄 △섬유의류제품 안전 세미나 △범한국신발인대회 및 섬유패션인의 밤 △국제첨단 한국신발디자인 공모전 및 대한민국 전통의상공모대제전 등 전문가 세미나, 패션쇼, 신발 · 패션 관련 각종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이외에도 △부산패페 키즈모델 선발대회 △신발커스텀 체험존 △신발브랜드 팝업스토어 △부산패브릭메이커랩 원데이 △패션체인지 이벤트 행사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패페부산 2019를 통해 부산 시민과 산업 관계자에게 지역 전략산업인 신발, 산업용 섬유, 섬유 패션의 첨단 기술 및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관련 산업의 밝은 희망적인 미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총연합 자카르타서 시위... 주최저임금 최대 15% 인상 요구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날인 30일에 이은 항의다. 시위는 자카르타 남부의 가로수 브로포 거리(Jalan Gatot Soebroto)에 위치한 노동부 앞에서 실시됐다. KSPI 측

은 최근 취임한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에게 내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인상률을 10~15%로 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항의했다. KSPI 사이드 이끄발 대표

에 따르면, 이들은 자카르타 시위에 서부 자바 및 반쁜에서도 노동자들이 가세해 약 3,000명이 결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끄발 대표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이 이



전부터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의 개정에 찬성하는 자세만 보이고 아직도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주최저임금 인상률은 8.51%가 되지만, 이들은 이를 크게 웃도는 최대 15%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KSPI는 30일에도 중앙 자카르타의 자카르타특별주 청사 앞에서 시위를 실시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내년 주최저임금 인상률에 노사 모두 난색...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내년 1월에 적용되는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인상률을 8.51%로 설정한 것에 대해 노사 양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의 노동국은 내년 주최저임금을 노사정에 의한 임금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 인상률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이끄발 대표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주

장하면서 최저임금 금액은 근로자가 적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적정생활 수준(KHL)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KHL을 산출하기 위해 전통 시장 등에서 실시하는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을 이전의 60개에서 78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으로 노사정이 임금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단)의 안톤 부회장(노동 문제 담당)은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이 4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률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8.51%의 인상률에 난색을 표했다.

전국의 주최저임금 상승률은 2011년 11.5%에서 2012년에는 8.25%로 낮아졌지만, 이후 4년간 연속 8%를 넘고 있다.

자카르타 노동국의 안드리 국장은 임금위원회가 이미 KHL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사에서 산출된 KHL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LIGHT+
The Solutions of LED

LED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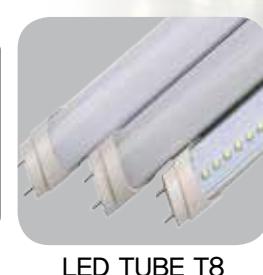
LED Module Light SSM



LED Street Light SSE



HIGHBAY UFO



LED TUBE T8

인니 현지 생산 가성비 최고 품질 완벽보장

한국부품을 사용해 수입품에 비해 가성비 극대화
인니 판매를 위한 SNI, TKDN, SUKOFINDO, ISO9001등 완벽한 인허가
적정 재고보유로 소량 및 대량주문에도 정확한 공급가능
현장 맞춤형 특수스페제작 및 품질보증과 신속한 A/S



PT. Surya Citra Teknik Cemerlang (LIGHT+)

JL. Raya Narogong Pangkalan 1B, Bantar Gebang, Bekasi 17151
TELP : (021) 8262 7380 Fax : (021) 8263 4261

한국인 상담 : 0816 857 404 Email : sungleejkt@gmail.com

조코위 대통령, 초고속 통신망 ‘빨라빠 링’ 완성 선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내 전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정비하는 프로젝트 ‘빨라빠 링(Palapa Ring)’의 완성을 선언했다. 정부는 국토를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 정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서부와 중부에 이어 남은 동부의 통신망이 8월에 완성됐다. 이로써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부의 통신망은 해저 4,426km, 육상 2,452km의 총 6,878킬로미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국 총 연장 1만 2,148km의 통신망이 완성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서부 파푸아주 소롱(Sorong)



과 메라우께(Merauke), 동부 누사틍가라주 로떼(Rote), 아체주 사방(Sabang), 동부 깔리만딴주 뼐나잠 빠세르(Penajam Paser)의 각 지방 정부 기관과 빨라빠 링 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회의를 통해 회담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사방에서 메라우께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민이 차별 없이 고속 통신망의 고급 기술에 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中자바 스마랑에 자유무역협정(FTA) 정보센터 내년 개설



엥가르띠아스또 루끼파(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내년 중부 자바주 스마랑시에 자유무역협정(FTA) 정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9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동 센터는 국내에서 6번째 개설이다. 2018년 5월부터 운영된 FTA 정보센터는 자카르타, 반동, 수라바야, 메단 및 마까사르

5개 도시에만 있었다. 수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및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부 자바주 산업무역국 아리프 국장에 따르면, 동 센터는 산업무역국 사무실 내에 설치한다. 무역에 대한 편리성 향상, 국제 무역 협정 제도 활용, 수출 지원 및 신규 수출 개척을 업무의 세 가지 기둥으로 한다. 중앙 정부와의 조정 거점으로도 기능한다.

한편 중부 자바의 8월 비 석유 및 가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한 7억 114만 달러였다. 1~8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55억 2,464만 달러였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정책

엣지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로 가고 있다. 모든 길이 로마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고 증권투자를 하고 공장이나 집에 있는 CCTV를 보며 기계나 가전제품을 제어한다. 스마트 팜(farm)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농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농사를 짓는다. 도처에 깔린 CCTV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자동차 한 대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센서가 엄청난 정보를 주고받으며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길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고 원격으로 측정,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우리들 50억이 소통하는 양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인텔은 2020년이면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1.5 GB의 트래픽을 이용하고, 보는 비디오 용량은 1 PB(1,000 GB)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 내년이다. 무인 자동차, 드론, 모바일 기기, CCTV, 사물인터넷 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형 데이터센터의 빠른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고 그 결과로 적절한 대응을 한다.

이런 일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집한 정보를 더 빨리 전송하는 5G 같은 새로운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데이터센터의 부하를 줄여야 한다. 즉, 새로운 서버와 광섬유 같은 레이더시(지연)를 줄여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데이터의 압축 기술이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의 엣지나 중간에 일정한 작업을 처리하는 경량 프로세서를 두어 핵심 네트워크의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바일 서비스의 응답 시간을 개선할 수 있다. 엣지 컴퓨팅은 쓸모없는 정보는 폐기하고 유용한 정보만 미리 빠르

게 분석해 핵심 네트워크의 서버로 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쪼개, 적합한 서버에 보내는 가상화용 엣지 컴퓨팅도 떠오르고 있다.

엣지(Edge)는 ‘끄트머리’라는 뜻이다. 단말(장치) 또는 종단이라고도 한다. 끝 점이라는 뜻에서 엔드 포인트(end point)라고 할 때도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폰 또는 송수신 태워가 엣지이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정비소의 장비나 센서가. 기업 IT에서는 노트북이나 PC가 엣지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우리 개인도 엣지다.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생성한 데이터를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까지 긴 경로로 보내는 대신 데이터가 생성된 위치, 즉 통신망의 엣지에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먼 곳의 서버로 보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기술은 제조, 의료 서비스, 통신, 금융을 포함해 생활 전반에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클라우드와 엣지 기기 간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신 채널이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이 필요한 것이다.

엣지 컴퓨팅 시장이 성장하면서, 엣지와 비교되거나 차별되는 것이 바로 포그 컴퓨팅(Fog Computing)이다. 엣지 컴퓨팅이 엣지 기기 가까이에서 수행되는 컴퓨팅 과정에 더 집중한 용어라면, 포그 컴퓨팅은 엣지 기기와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가리킨다. 따라서 포그 컴퓨팅은 엣지 컴퓨팅은 물론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를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엣지 컴퓨팅에서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지 않



조기조 교수

고. 생성된 곳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가 적을수록 해킹 상황에 노출되는 데이터도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엣지 기기 자체가 더 보안에 취약하고 엣지 컴퓨팅이 태생적으로 덜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엣지 컴퓨팅이나 포그 컴퓨팅 설계에서 보안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 제어,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터널링 등은 기본적인 보안책이다.

오래전에 공상과학소설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운전 안하고도 자동차가 다니게 되었다. 웃날, 한때 운전기사가 여대생들의 결혼상대로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다면 누가 믿을까? 통신망에 구름(클라우드)이 퍼지더니 이제 안개(포그)도 피어오르고 있다. 정보기술이 어떤 폭풍이라도 몰고 오려나?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드록, 북 디자인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깍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드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인니 정부 “알바그다디 사망 후 IS 하부조직 활동 우려”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보복 테러’ 경계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IS 세력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도꼬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고 IS 활동이 위축됐지만, 하부 조직은 여전히 조국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IS 외국인 전사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IS 하부 조직을 설치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들은 말레이시아, 호주 등 여러 나라 출신이고, 일부는 인도네시아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도꼬 비서실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IS 하부조직이 급진적인 가르침에 노출된 주민들을 추종자로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테크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IS 추종자와 IS 연계 테러 단

체인 ‘자마 안샤롯 달우라’(JAD)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IS 추종자가 자바섬 수라바야 경찰서에서 낚을 휘둘렀고, 이달 10일에는 위란도 당시 정치범률안보조정 장관이 JAD 조직원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IS 세력이 깊숙이 침투한 국가는 알바그다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자국에서 보복 테러가 발생할까 봐 경계를 강화했다.

멜린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알바그다디의 사망은 조직에 큰 타격을 줬지만, 이는 일시적 장애일 뿐 누군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요브 칸 마이딘 피차이 말레이시아 경찰청 특수대테러부 차장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의 죽음은 IS 사상 확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IS의 가르침이 확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IS의 출판물과 잡지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바그다디는 지난 26일 시리아 북부 이들립에서 미군 특수부대 급습을 받고 자폭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루 뒤 그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신남방특위 · 무협,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협력방안 논의

인니 물류 · 베트남 도시인프라 · 태국 모바일콘텐츠 공략 제안



▲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제2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 ASEAN) 특별정상회의, 한 · 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특별위원회 천영길 부단장과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공동 주재로 3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연합회에 새로 참여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22개 단체 대표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등 정부 관

계자가 참석했다.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 메콩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소개 및 활용방안 ▲ 신남방지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용방안 ▲ 신남방 무역 및 서비스 진출 방안 ▲ 연합회 회원별 건의사항 등 신남방 진출과 상호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내달 25~26일에는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어 27일에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연합회 소속 기관들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해외마케팅종합대전, 한 · 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밋, 인베스트 아세안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신남방 무역 · 서비스 진출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 연구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아세안 진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거점국과 랜드마크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먼저 공략해야 한다"면서 "우선 진출할 국가와 분야로는 인도네시아와 물류, 베트남과 도시 인프라, 미얀마와 농업, 말레이시아와 소비재, 태국과 모바일 콘텐츠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출범 10개월을 맞아 연합회가 28개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한국 기업의 신남방 국가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임산부에 반년 간 대기 기간 도입 방침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은 임산부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한 첫날부터 6개월의 대기 기간(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산 직전이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임산부가 많아

건보료 적자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21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홍보 관계자는 "임산부의 65%는 출산을 1개월 앞두고서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또한 이 중 43%는 출산이 끝나면 보



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 비

인도네시아 건보료 인상... 대통령령 개정령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보장 기관(BPJS)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10월 30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스리 룰아니 재무부 장관이 만성 적자로 고통받는 건강보험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82호'의 개정령 '2019년 제75호'를 24일자로 제정, 이날 시행했다.

보험료 인상은 '급여 소득자', '자영업자', '빈곤층'의 전체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월급의 5% 보험료를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지불하지만, 산정 기준 급여의 상한을 800만 루피아에서 1,200만 루피아로 올렸다. 지금까지는 수입이 800만 루피아를 초과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800만 루피아로 보험료가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1,200만 루피아까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5%의 부담 비율은 기존의 고용주 3%, 피보험자 2%에서

고용주 4%, 피보험자 1%로

변경되었다. 공무원은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민간

기업의 직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의료 서비스 등 급이 높은 '클래스1'의 월 보험료를 16만 루피아로, '클래스2'는 11만 루피아로, 가장 낮은 수준인 '클래스3'는 4만 2,000 루피아로 각각 약 2배 인상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빈곤층은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현행 2만 5,500 루피아에서 4만 2,000 루피아까지 인상하고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중앙 정부는 지원 조치로 1인당 월 19,000 루피아를 8~12월까지 5개월간에 한해 지방 정부에 지급한다.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3.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57세 * 음악의 성인 (악성)

이름으로 유추하면 베토벤은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건너온 이민가정 출신이다. 네덜란드의 중세 화가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의 이름처럼... 라인강가의 하르멘의 아들 렘브란트. 실제로 네덜란드 귀족 출신인 할아버지 는 독일 궁정악단의 악장이었고 아버지는 테너가수 였다.

서양음악의 완결자라 할 수 있는 베토벤은 본래 태어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20대 중반에 발병한 귀병으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조카 Karl의 양육권 문제로 제수씨와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다. 음악의 속도를 재는 메트로놈 (Metronome)을 발명한 Malzel (멜젤)이 보청기를 만들어 주었으나 너무 커서 잘 사용 하지를 못 했다고 한다.

죽기 25년 전에 쓴 유서를 항상 지니고 다닐 정도로 고로운 삶을 살았고, 그가 죽을 때 '희극은 끝났다. 박수를 쳐라'고 유언을 남겼다.

청각 장애를 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 했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와 인간 승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음악에서도 이러한

고뇌와 인생 역정의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불같은 성격의 괴팍한 천재로도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극작가 로맹 르랑은 '만약 하나님의 인간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그 것은 베토벤의 귀를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

유서에는 자기 병에 대한 괴로움과 사회 생활의 불편함, 그것을 이겨낼 동기인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물질보다 미덕(도덕)을 중시하는 삶. 후원자에 대한 감사함. 사후에도 걱정되는 두 동생의 생활과 관계 등을 서술하였다.

베토벤에 이르러서 음악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식인 소나타 형식이 완성 되었다.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소나타 형식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은 베토벤에게서 끝이 났다. 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음악가 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일컬어 지는 교향곡 9번 (합창). 이 곡은 교향

곡 8번이 발표된 후 10년 정도 후에 작곡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교향곡 안에 '합창'이 삽입되었다. 그 시대의 악기와 성악가의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곡이라고 하나

지금은 모든게 발전되어 완벽한 연주를 들을 수가 있다. 특히 성탄절에는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은 Beethoven, Brahms, Tchaikovsky의 작품이다.

혹자는 4대 5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Mendelssohn, Bruch, Sibelius의 작품을 넣기도 한다.

가끔 사람 이름 같은 게 곡목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Waldstein (발트슈타인) 또는 Kreutzer (크로이체)라는 이름.

이건 작곡자의 헌정곡으로 봄도 무방하다. Waldstein은 베토벤의 후원자였고 Kreutzer는 프랑스 바이올린 연주가였다.

베토벤이 1827년 사망함으로 고전주의는 막을 내리고

구라파의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작곡가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작품에 담아 낸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감상곡 :

교향곡 9번, 7번, 6번 (전원) 3번 (영웅).

바이올린 소나타 No.5 (Spring) Op.24 & No.9 (Kreutzer) Op.47,

Piano Concerto No.5 Op.73 (Emperor), Violin Concerto Op.61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Piano Sonata 8번 (비장), 14번 (월광), 21번 (Waldstein),

Egmont 서곡 Op. 84, 가곡 Adeleide

4. 낭만주의 (Romanticism)

Romanticism 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언어 로망스어. 즉,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로 썩어진 이야기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게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낭만주의라는 말이 생겨 났다.

낭만주의는 1827년 베토벤의 사망에서 1883년 바그너의 사망 까지 56년간의 기간이다.

차츰 사람들이 고전주의의 엄격함과 규율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신비하며 개성

곡 8번이 발표된 후 10년 정도 후에 작곡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교향곡 안에 '합창'이 삽입되었다. 그 시대의 악기와 성악가의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곡이라고 하나

지금은 모든게 발전되어 완벽한 연주를 들을 수가 있다. 특히 성탄절에는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은 Beethoven, Brahms, Tchaikovsky의 작품이다.

혹자는 4대 5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Mendelssohn, Bruch, Sibelius의 작품을 넣기도 한다.

가끔 사람 이름 같은 게 곡목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Waldstein (발트슈타인) 또는 Kreutzer (크로이체)라는 이름.

이건 작곡자의 헌정곡으로 봄도 무방하다. Waldstein은 베토벤의 후원자였고 Kreutzer는 프랑스 바이올린 연주가였다.

베토벤이 1827년 사망함으로 고전주의는 막을 내리고

구라파의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작곡가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작품에 담아 낸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감상곡 :

교향곡 9번, 7번, 6번 (전원) 3번 (영웅).

바이올린 소나타 No.5 (Spring) Op.24 & No.9 (Kreutzer) Op.47,

Piano Concerto No.5 Op.73 (Emperor), Violin Concerto Op.61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Piano Sonata 8번 (비장), 14번 (월광), 21번 (Waldstein),

Egmont 서곡 Op. 84, 가곡 Adeleide

4. 낭만주의 (Romanticism)

Romanticism 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언어 로망스어. 즉,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로 썩어진 이야기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게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낭만주의라는 말이 생겨 났다.

낭만주의는 1827년 베토벤의 사망에서 1883년 바그너의 사망 까지 56년간의 기간이다.

차츰 사람들이 고전주의의 엄격함과 규율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신비하며 개성

임칠우의

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3,4



적이고 자기만의 감상적인 것을 동경하는 풍조가 생겼다.

이러한 사회 풍조에 따라 예술가들도 이전보다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였는데 이걸 통털어 '낭만파'라고 하였다.

음악사에서는

전반기에 활약한 Weber, Schubert를 전기 낭만파,

중반기에 활약한 Mendelssohn, Schumann, Chopin (소팽)을 중기 낭만파,

후반기에 활약한 Wagner, Liszt, Verdi, Bruckner, Brahms, Tchaikovsky, Saint-Saens, Puccini를 후기 낭만파라 부른다

1. Carl Maria von Weber (1786–1826)

40세 *낭만파의 새벽종

낭만주의의 첫 작품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Der Freischütz)이다.

숲속에 사는 사냥꾼의 얘기에 민요곡풍의 선율과 환상적인 관현악 법을 가미해 낭만주의에 걸 맞는 최초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웅장한 작품과는 달리 그는 천성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고 40세에 런던에서 객사하고 만다.

마탄의 사수 서곡에 나오는 Horn (호른)이 연주하는 멜로디는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휘봉을 사용하여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초의 음악가이다. '무도회의 권리'는 원래 피아노곡 이었으나 Berlioz (베를리오즈)에 의해

교향곡으로 편곡 되었다.

감상곡 :

오페라 마탄의 사수 Overture (서곡)

무도회의 권리 (Invitation to the dance), 클라리넷 협주곡 No.1

2.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31세 *가곡의 왕

슈베르트 만큼 살아 생전에 빛을 못 보고 단명한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

총 1,000 여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600 여곡이 가곡이었으니 가히 가곡의 왕이라

는 별명이 붙을 만 하다.

고전주의에서는 별로 중요시 하지 않게 생각했던 가곡을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끌어 올린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시와 음악과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 그의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독일어 가사의 아름다움, 친근한 멜로디 그리고 피아노 반주의 독립성이 그의 가곡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도 베토벤처럼 독신으로 궁핍하게 살았다. 맥주를 좋아한 156 cm에 통통한 몸매로 맥주통이란 별명이 있었다 한다

1822년경 베토벤은 슈베르트를 만나 '이 사람을 진작 알지 못 한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고 한다.

베토벤을 인간적으로 좋아해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으며 그 후로 시름시름 앓더니 베토벤 사후 1년만에 사망했다.

화가 친구들이 많아 음악가중 가장 많은 초상화를 남겼다. 특히 우리가 자주 보는 곱슬머리에 코끝에 걸려 있는 작고 동그란 테의 안경을 쓴 슈베르트를...

교향곡도 8곡이나 작곡했는데, 마지막 8번이 1, 2 악장만 작곡된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 (Unfinished)이다.

'내 사랑이 끝나지 않았듯이 내 음악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감상곡 :

아베 마리아, 들장미, 자장가, 피아노 5중주 Op. 114 송어 4악장

연가곡 Winterreise (겨울여행), *5번째 곡이 보리수 (Der Lindenbaum), 6번째곡이 넘쳐 흐르는 눈물

Piano Trio Op. 100, Arpeggione (Cello Sonata) * 아르페지오네란 지금은 없어진 19세기 슈베르트 시대의 작은 첼로라 불리던 6현의 현악기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 약 20만컷의 고해상고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리복, '지그 키네티카 컨셉트 타입 1' 출시 ... 클래식 제품 해체해 재구현



▲ 리복 지그 키네티카 컨셉트 타입 1 (Zig Kinetica Concept Type 1)

리복은 클래식한 제품을 재구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리복이 오늘날 가장 '분열'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인 지그 (Zig)를 사용해 새로운 스니커즈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처음 출시되는 '지그 키

티카 컨셉트 타입 1'은 밀창 기술과 어퍼를 결합한 제품으로써 가브스토어 (Garbstor)의 설립자 Ian Paley가 디자인했다.

리복에 따르면, 외관은 "클래식한 디자인을 전복시켜 패션과 성능을 최대한으로 개선

했다."고 말했다.

"이 신발은 순수하게 밀창 기술 개발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나는 초기 단계부터 이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지그 키네티카 컨셉트 타입 1'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디자인됐다. 나는 어퍼도 소재와 색상을 결합해 동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비슷한 방식을 차용하길 원했다."고 Paley는 말했다.

"나는 디자인에서 주로 감춰지는 요소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어퍼가 기계에서 움직이는 부품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그리고 착용자가 신발을 조여맬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Paley는 기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복 정신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누구나 오리지널 지그 기술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그 기술이 처음 개발됐을 당시에는 부조화를 보였었다. "나는 기술을 진보시키고 추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방치한다면 결코 발전 할 수 없다. 리복은 자체 기술을 개발 및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 같은 브랜드 스토리에 새로운 스토리를 더했다."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모습의 '지그' 밀창은 파리와 뉴욕 패션 위크에서 코트와 일러와 크로랫

의 파트너와 함께 첫 선을 보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11월 8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Paley는 미래에도 협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리복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대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Paley는 말했다.

출처: Footwear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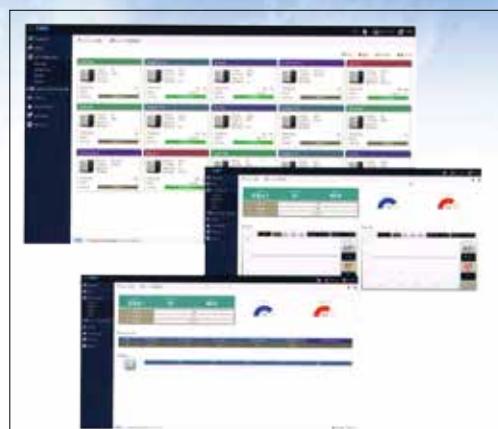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경원 콤프레샤



PC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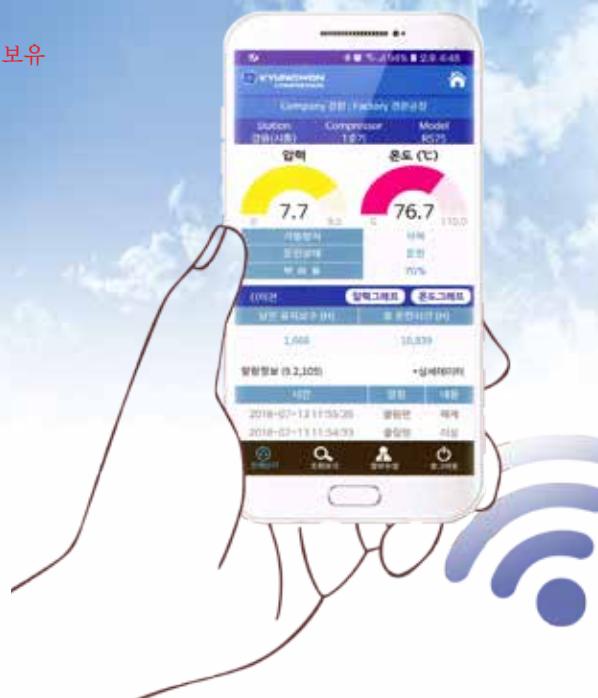


운전상황 Monitoring

-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 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8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www.dbkw2000.com

수페르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니커즈 브랜드

SEM러쉬 (SEMrush)가 수백만 명의 웹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풋웨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페르가 (Superga)였다.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수페르가는 지난 해 약 960만 켤레가 수출됐다. 그렇다면, 이 이탈리아산 신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SEM러쉬가 조사한 결과, '수페르가' 검색은 월간 평균 6만7,492건, 하루 평균 2,000건이 이뤄지고 있었다. 1911년 이탈리아 투린에서 설립된 역사적인 스포츠 슈즈 브랜드 수페르가는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탈리아인들이 찾고 있는 신발이 됐다. 한편, 2위를 차지한 토즈 (Tod's)는 월 평균 4만3,933건의 검색을 기록하고 있다. 3위는 산악용 기능화 전문 브랜드인 라 스포르티바 (La Sportiva)로써 3만425건의 월 평균 검색이 이뤄졌다.

다음은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10곳이다.

1. **수페르가** – 월 평균 검색 6만7,492건

2. **토즈** – 월 평균 검색 4만3,933건

3. **라 스포르티바** – 월 평균 검색 3만425건

4. **스카르파** – 월 평균 검색 1만8,075건

5.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 월 평균 검색 1만4,658건

6. **나이키 스니커즈** – 월 평균 검색 1만2,083건

7. **아디다스 스니커즈** – 월 평균 검색 7,792건



브랜드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니커즈 검색 상위 10개국 중 9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수페르가였다. 하지만 미국만 예외적으로 한국 브랜드인 필라를 선호했다. 수페르가의 인기가 스니커즈 검색 상위 20개국으로 확산된다면, 수페르가 풋웨어는 세계적으로 확고부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위 20개국에서 토즈 (프랑스에서 5위, 대만에서 12위, 일본에서 15위, 벨기에에서 17위)도 인기가 있다. 그리고 라 스포르티바와 발디니니, 수페르가 모두

스위스 (공동 13위)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라 스포르티바는 오스트리아에서 18위, 발디니니는 러시아에서 20위를 차지했다.

나이키, 아르헨티나 생산 공장 축소할까?... 지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아르헨티나 언론사인 파지나 12 (Pagina 12)에 따르면, 나이키가 현지 생산 시설을 축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입으로 지역 생산 능력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이키는 파트너사인 브라질의 다국적 기업 다스 (Dass)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아르헨티나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

현지 소식통은 나이키가 엘도라도 시티에 위치한 나이

키 공장 근로자 640명 중 4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이키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50% 이상의 근로자를 감축한 바 있다 (2015년 총 공장 근로자는 1,400명에 달했다).

풋웨어 산업의 노동조합인 UTICRA에 따르면, 공장 운영 중단이나 공장 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이미 400명의 근로자 해고는 승인된 조치라고 밝혔다. 엘도라도 공장에서는 거의 나이키 제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장 운영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현지 소식통은 설명했다.

하지만 다스 측은 현지 언론사의 보도에 반박하며, 최소 2020년까지 생산 공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파지나 12는 일련의 공장 축소 또는 폐쇄로 아르헨

티나의 풋웨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orldFootwear.com

가죽화 전문 브랜드 소프트웨이브, 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서

가죽 소재의 풋웨어 생산 전문 브랜드인 소프트웨이브 (Softwave)의 목표는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당사는 비동물성 신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에 투자할 계획이다. 가죽 소재 풋웨어 생산을 중단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당사의 비전은 폴리머나 재활용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합성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소프트웨이브는 밝혔다.

소프트웨이브의 마르첼로

산토스 CEO는 이것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가죽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재는 대부분 오염성이 높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소재다. 당사는 자연에서 나온 새로운 소재를 사용해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소프트웨이브 최초의 친환경 전략은 나뭇잎과 바이오매스 소재를 상업적으로 변형해 밑창과 인솔에 사용하는 것이

다. "당사는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상업적으로 통합시키는 방법과 가죽만큼 내구력이 있는 제품을 찾는 두 가지 측면을 연구 중에 있다."

출처: WorldFootwear.com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 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면 캔버스, 탄생부터 필수 상품이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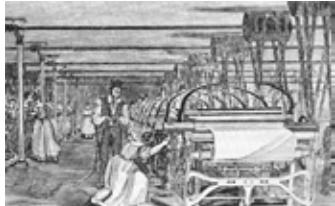
수많은 스니커즈 브랜드들은 풋웨어 세계에 최신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최신식 기술로 무장한 신발들을 비교할 경우 대기업들이 기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풋웨어 산업에서 사용했던 소재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현재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기까지 과정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스니커즈의 소재는 세계 무역과 자본주의, 제조업을 형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면보다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재는 많지 않다.



면은 솜털로 뒤덮인 흰색 섬유로써 면 식물 씨앗 주변의 꼬투리에서 자란다. 그리고 꼬투리에는 최대 25만개의 섬유가 들어있다. 이 면 섬유를 자아 실로 만든 후 다시 실을 엮어 섬유로 만들기까지 6,000년 이상이 걸렸다.

면 식물은 온대 기후가 원산지이지만 전세계 사람들이 이 식물을 알아차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유럽인들이 면 작물을 사용해 옷을 만드는 법을 개발하자, 면은 곧 귀중한 생필품이 됐으며 기온이 낮은 유럽 도시들에서는 양털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유럽인들은 면 식물이 거대한 꽃에서 싹트는 양처럼 생겼다고 믿기도 했다. 이 같은 면은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피부에 닿아도 편안하고 세탁이 용이하며 염색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98년 다 가마가 희망봉 주위를 항해하면서 인도로 항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

증했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은 더욱 많은 면을 얻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운송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다. 1600년에 세워진 동인도 회사는 무역 경로를 개발했으며 곧 면은 주요 생필품 중 하나가 됐다.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면을 수입했고, 이렇게 수입된 면은 대부분은 옷으로 완성됐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8세기 말 산업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생산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재배업체에서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면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인은 어려운 업무도 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미가공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매년 지구에서 생산되는 면으로 1인당 입을 수 있는 티셔츠 21장을 만들 수 있다. 면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이 아닌 주요 섬유가 됐다.

양질의 면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면 섬유 길이가 길수록 완제품 섬유의 질이 뛰어나다. 긴 면을 방적사로 엮을 때 종점의 수를 적게 만들수록 마찰로 인해 쉽게 마모될 일이 적다.



1892년, 미국의 한 고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스니커즈를 개발했다.

고무 신발 밑창 제작에 사용된 공정 과정은 크로켓 신발 개발 당시 같이 고안됐다. 그리고 당시 주로 신었던 가죽 신발과는 달리 통기성이 있고 탄력적인 어퍼를 더했다. 바로 이렇게 면 캔버스가 개발된 것이다.

조밀하게 짜인 직물은 마찰에도 내성이 있을 정도로 튼튼했으며 면 특유의 통기성과 흡수성을 더했다. 이렇게 개발된 신발에는 케즈 (Keds)라는 명칭이 붙었고 1917년 대량생산에 돌입됐다. 그리고 마르키스 컨버스의 농구화가 인기를 끌기 시

작할 때 또 다른 상징적인 캔버스화가 탄생했다.

방적사는 종류에 따라 특정한 밀도로 생산이 되며, 이는 슬레이드 수로 결정된다. 이처럼 면을 짜는 일은 밀도와 종점의 인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 개발로 현대에서 면 직물이 부족한 일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캔버스는 스니커즈에 사용되기 그 이전부터 보트와 가방, 텐트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직물 중 하나다. 캔버스는 튼튼하고 내구력이 있게 만들어졌으며, 캔버스의 특정 유형은 밀도를 높여 방수 성질도 부여했다. 현대 버전의 캔버스는 보통 면으로 만들지만, 과거에는 삼으로 만들었다.



캔버스화는 곧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신을 수 있는 풋웨어가 됐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돼 심지어 군대에서는 훈련화로도 사용됐으며, 패션 잡지에도 실리게 됐다. 더 나

아가 경량의 통기성이 높은 직물이 개발되자 캔버스화의 성능은 더욱 개선됐다.

마침내 면 캔버스는 캐주얼 풋웨어에서 인기 상품이 됐다. 1960년대 아이비리그에서 캔버스화를 받아들였고 70년대의 캔버스화는 가죽 신발보다 인기가 높았다. 80년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컨버스 (Converse)가 풋웨어 시장을 장악했으며 90년대에는 그런지 (grunge) 족까지도 캔버스화가 달아 떨어질 때까지 착용했다.



2000년대 초반 나이키 SB가 부상하면서 캔버스는 더욱 중요해졌다. 에어 조던 1은 패브릭의 장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 오랫동안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됐다. 스니커즈가 대중화되면서 캔버스 어퍼는 전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품 중 하나가 됐다. 다음에 캔버스화를 신게 될 때 잠시라도 면이 주는 혜택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신발관련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완제,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개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개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58-9060-0962

SINCE 1968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 × 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 × 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동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동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트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2019년 활용도와 디자인적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한 트레일 전용 스니커즈들이 출시되고 있다. 과거 주를 이뤘었던 다소 거주장스러웠던 '대디 슈즈'에 대한 반발로, 최근의 트레일 스니커즈들은 디자인과 기능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고안되고 있다. 살로몬과 뉴발란스,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은 2019년 최고의 트레일화를 출시했다. 팰리스 살로몬 스피드크로스 4 (Palace Salomon Speedcross 4)

1947년 프랑스 알프스의 중심부에서 탄생한 살로몬은 2019년에도 스트리트 웨어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의 스케이트 브랜드 팰리스와 협업을 통해 스피드크로스 4를 디자인했다. 텅과 토박스 제작 기술을 보유한 팰리스와 퀵레이스 (Quick-lace) 시스템과 콘타그립 (Con-

tagrip) 아웃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살로몬이 만나, 내구력이 높으며 경량인 팰리스 살로몬 스피드크로스 4가 개발된 것이다. 이 제품은 일상생활이나 런웨이, 트레일 등 어디서든 눈길을 사로잡는다.



뉴발란스 990 + 801 (New Balance 990 + 801)

뉴발란스의 990 + 801은 대디 슈즈와 산악용 기능화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기존의 하이킹화인 801 제품에 압축형 EVA 품 미드솔과 고무 소재의 아웃솔을 결합해 만든 990 + 801은 슬기가 없이 튼튼한 외관이 특징이다.



코트와일러 리복 DMX 트레일 샐도우 (Cottweiler Reebok DMX Trail Shadow)

지난 9월, 코트와일러의 벤 코트렐과 매튜 데인티가 리복의 DMX 트레일 샐도우를 지휘해 시그니처인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강화했다. 텅에는 코트와일러의 로고를 부착하고 소재는 누벅과 스웨이드를 결합해 2019년 들어 가장 인상적인 트레일 스니커즈를 디자인했다.



더 브로큰 암 살로몬 트레일 프로 (The Broken Arm Salomon Trail Pro)

지난 5월, '알프스의 왕' 살로몬이 프랑스 부티크 더 브로큰 암 (The Broken Arm)과 협업을 통해 기능성 트레일화 '트레일 프로 (Trail Pro)'를 출시했

다. 더 브로큰 암 x 살로몬 트레일 프로는 베이지와 적갈색, 라임 그린 색상을 사용해 시각적 계층 효과를 냈다.



뉴발란스 MSRC (New Balance MSRC)

뉴발란스의 또 다른 제품, MSRC 하이킹 스니커즈는 574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세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했다. 뉴발란스는 립스톱 나일론과 스웨이드, 메쉬를 사용했으며 측면에 'N' 자를 새겼다. 하이킹과 평상화 모두 어울리는 MSRC는 2019년 가장 저평가된 제품 중 하나다.



언더커버 나이키 ガクスウ 페가수스 36 트레일 (Undercover Nike Gyakusou Pegasus 36 Trail)

러닝 애호가인 준 타카하시는 나이키 에어 줌 페가수스 36으로 1970년대 러닝 정신을 이었다.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산물인 ガクスウ는 페가수스 36을 토글 레이스 시스템과 케이지 오버레이로 리모델링한 제품으로써 기능성을 강화했다.

일본 브랜드와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이 제품의 뒤품침에는 바람개비 모티브를 실었으며 미드풋에는 스우시를, 그리고 토박스에는 'GYAKUSOU WENT THE DISTANCE'를 새겼다. 팰리스 살로몬 스피드크로스 4 (Palace Salomon Speedcross 4)

1947년 프랑스 알프스의 중심부에서 탄생한 살로몬은 2019년에도 스트리트 웨어의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의 스케이트 브랜드 팰리스와 협업을 통해 스피드크로스 4를 디자인했다.

텅과 토박스 제작 기술을 보유한 팰리스와 퀵레이스 (Quick-lace) 시스템과 콘타그립 (Con-tagrip) 아웃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살로몬이 만나, 내구력이 높으며 경량인 팰리스 살로몬 스피드크로스 4가 개발된 것이다. 이 제품은 일상생활이나 런웨이, 트레일 등 어디서든 눈길을 사로잡는다.

덴마크 에코골프화 론칭쇼 “진화하는 골프화”



제이디플러스가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드레스가든에서 덴마크 에코골프화 '2020년 론칭쇼'를 열쳤다. 올해는 신두철 대표(사진)가 직접 나서 전시회에 토크쇼와 패션쇼까지 가미해 더욱 시선을 끌었다. 실제 패션 트렌드를 접목시킨 라이프스타일 하이브리드 골프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새로 개발한 아웃솔 신소재 'PU Phorene(포린)'이 출발점이다. 가볍지만 지면 반발력은 기존 PU 대비 3배 이상 뛰어나다.

에코골프화가 바로 가죽 생산부터 모든 과정을 직영공장에서 진행하는 '장인정신'으로 유명한 메이커다. 골프화 한 켤레가 탄생하기 위해 무려 225차례 공정을 거친다. 최고급 퀄리티의 가죽과 첨단 테크놀로지는 기본이다.

여기에는 인체 해부학적 디자인을 더했다. 내추럴 모션 라스트는 운동 선수 2500명의 발을 스캔한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다. 누가 신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다.

내년에는 '바이옴 쿨 프로(Biom Cool Pro)'가 주력 모델이다. 에코 특유의 깔끔한 핏을 보장하는 바이옴 기술과 360도 고어텍스로 감싸 통기성이 뛰어나면서도 완벽한 방수를 자랑하는 코어텍스 서리운드가 돋보인다.

필드에서 강력한 접지력을 발휘해 골퍼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일상에서는 오래 걸어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제2의 피부' 역할을 수행한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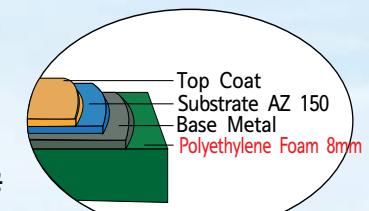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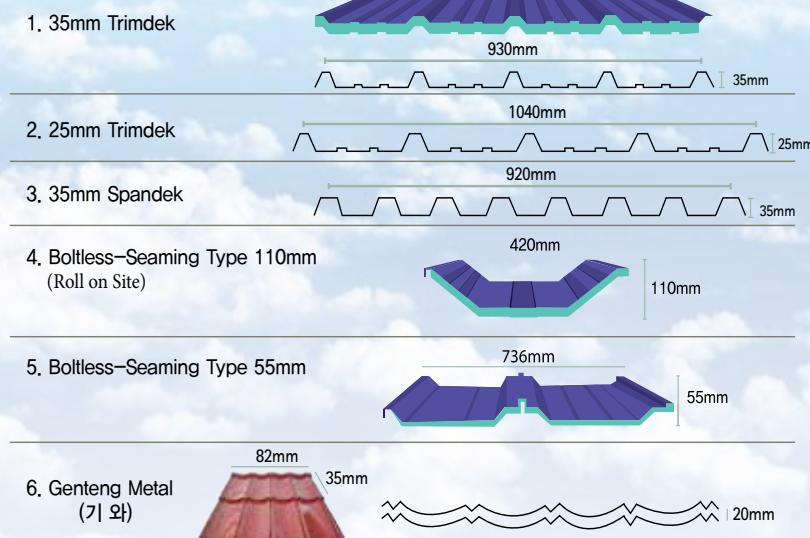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훌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신한은행, 2020년 글로벌 및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지난 28일 신한인도네시아은행(법인장 황대규)과 함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2020년 글로벌 및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기업인들과 주재원, 교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글로벌 및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한국 부동산 관련 이슈 및 전망으로 구성되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연준의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



운데 조코위 정부 2기 출범 이후 좁게는 인도네시아, 아세안, 넓게는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과 교민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 전략 수립

과 다양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신한은행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처음 열렸으며, 베트남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현지 한인 기업인들과 주재원들, 교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한인 사회 내 소통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바 있다.

엄브로, 라틴 아메리카의 ‘그루포 다스’ 와 파트너십 계약 연장 발표



아이코닉스 브랜드 그룹(Iconix Brands Group)이 오랜 파트너사인 그루포 다스(Grupo Dass)와 엄브로(Umbro)의 라이선스 계약을 10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루포 다스는 이번 계약 갱신을 통해 2035년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엄브로의 기능성 및 라이프스타일 어페럴, 풋웨어, 장

비 등을 디자인, 제조,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연장하게 됐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포츠 브랜드 제조업체 겸 마케터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루포 다스와 아이코닉스 브랜드 그룹이 소유한 영국의 상징적인 풋볼 브랜드 엄브로는 20년 전인 1999년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당시의 전문지식과 엄브로만의 고유한 풋볼 역사를 결합한 덕분에, 엄브로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고 그루포 다스의 Vilson Hermes은 말했다. “당사는 엄브로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연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엄브로와 그루포 다스의

관계 연장은 아이코닉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풋볼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 중 하나다. 따라서 엄브로와 그루포 다스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고 아이코닉스 브랜드 그룹의 Bob Galvin 최고경영책임자 겸 회장은 말했다.

엄브로에 대하여
1924년 영국에서 설립된 엄브로는 영국 스포츠 상품 회사다. 2007년 아이카가 엄브로를 인수한 후 2012년 아이코닉스 브랜드 그룹에 매각했다. 엄브로는 현재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전세계 120클럽과 200명의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엄브로가 후원하고 있는 클럽에는 브라질의 산토스 FC, 그레미오, 크루제이로 에스포르테 클럽, 아바이 FC 등과 아르헨티나의 뉴월스 올드 보이즈가 있다.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인 WM그룹 IPS본부 산하 투자자산전략부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주도하여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이슈 자료를 주간 단위로 약 1,000여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개 현지 은행을 인수, 합병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였고, 한국 기업 및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원으로 9월 말 현재 총 자산 15.8조 루피아, 총 대출 12.6조 루피아를 달성했다.

또한, 현재 53개의 영업점 채널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자산 관리 전문가 집단인 WM그룹 IPS본부 산하 투자자산전략부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주도하여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이슈 자료를 주간 단위로 약 1,000여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유하고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인 다라마왕사에 지난 7월 점포를 신설하였고, 12월에는 땅그랑 아마르파뿌라 출장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한국의 Sol과 동일한 플랫폼의 모바일뱅킹을 출시하여 타 현지 은행 대비 기능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인도, 캐나다, 미국 등 현지 법인이 진출해 있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인 고객과 현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국내 다른 시중 은행과 차별화된 경제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 까지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 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Bridal

Best Quality

Fast Delivery